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독자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친리안 aum 하이텔 34713 나무누리: sutta
부디피아 인터넷: gobaou@buddhapia.co.kr

만화

법구경

* 부처의 장 *

욕망에는
짧은 쾌락이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향원

저녁에도 법당 개방 예불할 수 있었으면

얼마전 저녁 9시경 기도를 하기 위해 인근 절을 찾았으나 대중진 문이 굳게 닫혀 있었. 혹시나 하고 법당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 이로 인해 법당밖에서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겪는 것은 비단 나쁜만이 아닐 것이다. 퇴근후 저녁시간을 이용, 이곳 법당을 참배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법당은 모든 불자들의 안식처요, 고민과 기쁨을 맡겨 넣어놓을 수 있는 불자들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인상숙·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불교음악 복원 노력 민족문화 되찾는 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문

화, 전통음악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서양은 종교음악(교회음악)이 발달되어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하였고 고급음악인 종교음악이 대중음악을 선도하였다. 비기독교인들도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은 종교음악을 필히 듣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 종교음악(불교음악)이 퇴보하고 궁중음악, 제례음악 등이 고급음악으로 대체되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이 국악을 더 높은 차원의 종교음악, 예술음악으로 상승 발전할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국악을 살리는 길은 종교음악(불교음악)을 복원, 재창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민족문화를 되찾는 일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종의 한 부분 이 될 수도 있다. 영산회상같은 것도 없어진 불보살을 찬탄하는 가사를 다시 복원하여 가다듬는다면 적어도 수 많은 불

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음악의 선율, 유행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불자들은 가사만 들어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판치는 이 시대에 훌륭한 종교음악회는 불자들의 문화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발전은 종교음악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종교음악의 발전은 예술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종찬·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불교청년회에 가입 신행도반 갖고 싶어

저는 군복무중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여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돼 나름대로 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주나 손목에 걸고 다닐뿐 특별한 신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병원의 군법당인 '자광사'에서 현대불

교신문을 접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불교청년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무엇보다 신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반이 그림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청년회 가입, 신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서정일·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

불교 왜곡 내용담은 'X-경' 불애운동 벌여야

서점에서 이상한 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 복장을 하고 머리를 짧게 깎은 책의 모습을 담은 책표지와 책을 연상케하는 'X-경'이란 책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책

내용을 훑어보았더니 포르노소설을 방불케 하는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곳곳에 갖다붙인 불교적인 소재와 용어가 혀를 찰 지경이었다.
한때 출가해 불교물을 먹었다는 자자 박명동이 부처님 은혜를 입고도 이토록 상업성에 물든 저질 연예소설을 쓰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출판사(문학수첩)가 일부러 책표지에 머리띠를 스님복장의 사진을 내세우고 제목까지 '섹스 경'이란 의미를 사용한 것은 악덕 상층을 보여주는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도 문제다. 한때 승적을 가졌다 파계한 사 람이 불교를 왜곡하는 책을 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정락·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故 이기영선생을 추모하며

誰說死生同 幽明隔萬重
追念三彼岸 雲渡寒潭空
누가 사생을 같고 말했던가
저승과 이승은 겹겹히 막힌 것을
땀목은 벌써 피안에 닿았으니
구름 지나간 뒤의 연못이여라

음신(音音)이 끊어진 시골에 있다가 11월 11일 상경해서 아 선생께서 급거하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조교 박재순군을 시켜서 빈소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벌써 장례식이 끝났다는군요. 학술발표로 만나 술잔을 나눈 것이 얼마 전이었고, 저의 퇴임을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자주 만나자'고도 하시더니, 선생은 약속만 남겨둔 채 먼저 가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세의 꿈결인가요!

1996년 11월 11일 밤
후학 中天 金忠烈 누민(淚痕)
(고려대 교수·철학과)

심층보도 기사·지방소식 지면확대를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이세상이 은몽 불빛으로 훑어 한듯해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지면의 기사들에서 기자들의 분주함과 고뇌가 엿보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대불교의

학술기사는 다른 불교계 신문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 매년 교회의 한안문제를 짚어보는 열린 마당 역시 불교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거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곳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빠듯한

지면에 너무 많은 기사를 넣으려 하다보니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교계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은 좀더 자세한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 기사 역시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만 불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윤·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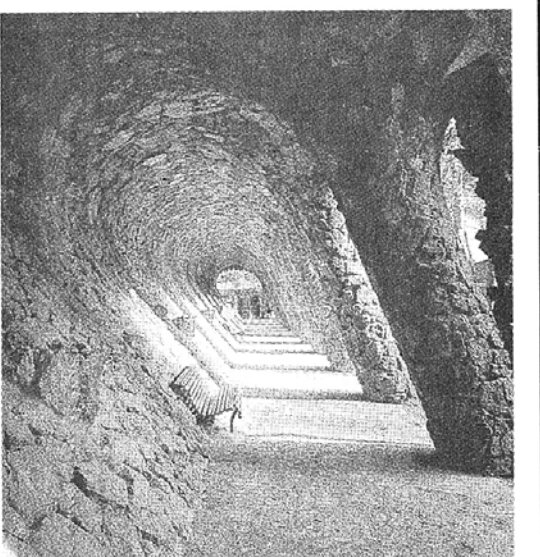
특별기고

가우디의 건축정신

지난 10월 22~31일 서울 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장에서 열린 '가우디를 보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 본 기억이 생생했다. 불세출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는 탁월한 예술성으로 건축예술의 새 경지를 구축했다는 평을 듣는 불세출의 건축가다. 그는 평생 수도자처럼 검정하고 고결하게 살면서 불후의 건축물을 남겼다.
평소 가우디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나의 위대한 건축사이다"고. 그는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서 설계했다. 그렇기에 별레를 꽃 나무 동물들과 자연동물 절벽의 단면모습이 모두 건축의 모델이 되었

다. 가우디의 걸작품의 걸작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공원'과 '성가족성당'이다.
구엘공원은 미완성 미래마를로 남아있다. 로마고딕 기법을 혼합하고 아르누보 양식을 도입한 성가족성당의 축조는 1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3분의 1쯤밖에 건설안돼 앞으로 200년 이상이 더 지나야 완공될 수 있다고 한다. 기껏해야 100년을 못사는 인생이 집건축 하나에도 300년이 더 걸리는 걸로 택했다는 그 느긋한 신중함과 여유에서 깨우침을 얻는다. 제멋대로 생긴 잡석의 모양대로 뒷쪽 기둥과 벽을 쌓은 구엘공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소다. 구엘공원과 구엘저택

밀라저택 등 가우디의 작품 3점은 지난 84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의 문화재가 되었다.
성가족성당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만기설법(萬機說法)의 탑이듯 만기설교(萬機說教)의 건물이다. 성경책이나 설교는 그때마다 성경을 읽는 이 설교를 듣는 이에게만 한정되지만 성가족성당은 항상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배어난 예술건축작품을 보면서 조금씩 대중대중 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건축발사에도 가우디의 건축정신을 꼭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지 록 (송광사 스님)



◇만사된 밝은 햇빛의 조명을 고려한 구엘공원 뒤편 돌담벽. 가우디의 작품으로 지난 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사천지국	전화	0593-32-5160
경흥지국	전화	0391-647-9317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명 역학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 ▲ 신년 행운을 잡는 비결부
- ▲ 임박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 ▲ 혼전행위를 위하는 비결부
- ▲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 ▲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 ▲ 부자가 되는 비결부
- ▲ 귀인이나 사냥하는 사냥을 얻는 인연설계 비결부
- ▲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행동 비결부
- ▲ 삼세소명 비결부
- ▲ 관리가 없는 집, 땅, 경로를 잘 관리 하는 비결부
- ▲ 리·재산을 의하는 법과 방법부

운명 역학/신국판/328쪽/값 12,000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박재명 지음 8,000원
홍영순 지음 7,000원

스스로 쉽게 배우는

척추건강법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전문가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술한 책과 비디오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과 마음(?) 활용"

- 1 척추를 바로잡아
- 2 신경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 3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 흘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합니다.

■ 가격 - 책과 비디오 테이프 : 7만원
국민은행 043-21-0418-782(김성수) 입금후 우편발송

문의 : (02) 525-2801,817-9374

서울시 동작구 본동 50-5
도서출판 하논

비디오 부모은중경

온가족이 함께 보는 영상경전

부모은중경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설하신 경입니다. 이제 보고/듣고/따라 하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비디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편의 비디오가 불자의 가정을 비롯해 사찰/교도소/군법당/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상영되어 자애와 효친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구현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소비가격 ₩20,000
포교/선물/법포시용으로 주문 특별 제작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가야프로덕션 (02)538-7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3-7 태광 B/D